

광주시교육청, '찾아가는 미세먼지 안전교육' 실시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 통한 미세먼지·코로나 감염 예방

전문강사 인력풀 활용...13개 초등학교 대상 현장교육

광주시교육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상반기에 실시하지 못한 '2020년 찾아가는 미세먼지 안전교육'을 2~11일 실시한다.

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안전교육은 최근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가 '나쁨' 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농도 미세먼지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학교의 사전신청을

받아 실시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선정된 관내 초등학교 13교(39학급 775명)를 대상으로 (사)한국재난안전협회 전문강사 인력풀을 활용해 해당학교에 직접 찾아가 현장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020년 찾아가는 미세먼지 안전교육'은 미세먼지 대응과 감염증 예방을 위한 이론교육

과 현장실습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을 통해 미세먼지와 코로나19 예방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학생 안전위생 및 방역수칙을 강조해 교육한다.

광주시교육청 안전총괄과 현경식 과장은 "이번 안전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그 대처방법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미세먼지·감염증 예방 안전교육에 대한 성과와 현장의견을 폭 넓게 반영하고 단계별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고려해 추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인호기자



여수 여양중학교 '아리러브페인팅' 행사 개최

여수 여양중학교(교장 박종인) 인문독서동아리는 11월 2일 도서관에서 인문독서동아리 '아리러브페인팅' 그리기 행사를 열었다.

학생들은 각자의 취향에 맞는 그림을 선택하여 다양한 색깔을 개성을 뽐내며 자아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아리 회원들은 이 교내 아리러브페인팅 행사를 통해 그림 그리기에 또다른 매력과 반전이 있음을 알았으며, 학생들은 한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한 작가의 고민과 열정이 그대로 그림 속에 녹아있음을 깨달았다.

이어서 도서관에서 완성된 작품을 전시하여 전교생이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완성도 높은 그림을 본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2학년 문수혁 학생은 "그림을 매일 접하는데 한 작품이 잉태되기까지 이렇게 많은 정성이 들어간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면서 "항상 나를 일깨워주는 동아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관한 김광호 교사는 "이번 교내 행사는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을 인터넷에서 선정하고 구입하여 개성에 맞게 그림을 그리며 자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인문독서동아리의 지평을 넓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해남교육청, '학부모와 함께 하는 찾아가는 교육감 경청올레'

지역 유·초·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의 의견수렴 및 교육활동 반영

해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성모)은 2일 전라남도학생교육원에서 해남 지역 유·초·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의 의견수렴 및 교육활동 반영을 위한 '학부모와 함께 하는 찾아가는 교육감 경청올레'를 가졌다.

해남학부모지원단의 사회로 진행된 경청올레에서 학부모들은 장석웅 교육감의 신학력관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전남혁신(자율)혁신학교 운영 방향, 교장 공모제 운

영, 함께 키우는 기초학력 책임제,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체제 구축과 내실화, 20여개의 작은 학교 활성화 방안, 해남지역의 신규교사 과다 발령에 의한 교원 인사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어서 30여명의 각 학교 학부모회장들은 지역, 학교의 다양한 문제 및 의견을 교육감님께 요청하고 이를 통해 우리 해남교육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

아갈 수 있도록 전남도교육청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하였다.

장석웅 교육감은 "해남학부모님들은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높아 평소에도 다양한 의견을 주신다. 항상 전남교육을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아서 아주 든든하고 특히 해남 교육의 미래가 너무 기대된다. 학부모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전남교육이 알찬 결실을 맺도록 적극 돕고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영광교육지원청, 전문적학습공동체 토론회 개최

운영방안에 대한 계획 수립하기 위해 실시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허 호)은 3일·5일 관내 유·초·중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전문적학습공동체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전문적학습공동체 토론회는 관내 38

개 학교안 전문적학습공동체의 다양한 운영 사례를 들으며 1년 동안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2021학년도 운영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먼저 10월 한달간 UCC공모를 통해 만들어진 19개의 전문적학습공동체UCC 공유를 시작으로 학교 운영사례를 공유하였다.

공동체의 고민과 해결과정 등 공동체의 소중한 이야기를 담은 UCC는 이날 참석한 선생님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어 집단지성을 발휘하기 위한 모둠별 공감도론이 이루어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느때 보다 열심히 연구하고 고민하였던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을 공유하고 되돌아보며 영광전문적학습공동체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2021학년도 전문적학습공동체가 나아가 할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에 참가한 영광중앙초 박한샘선생님은 "다른학교의 전문적학습공동체의 고민과 1년의 과정을 들으면서 우리 안의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었다. 선생님들과 토론하면서 2021학년도 우리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구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영광=서희권기자

목포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도사례 나눔 연찬회

'꿈을 꾸는 아이, 날개를 달아주는 선생님' 주제...지도 노하우 공유

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갑수)은 지난 3일, '꿈을 꾸는 아이, 날개를 달아주는 선생님'이라는 주제로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 사례 나눔 연찬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찬회는 문해력, 수해력 전담교사를 강사로 위촉해 기초학력 전담교사로 활동하며 쌓아온 학습부진 학생 지도 노하우를 공유하였다.

이어 초등1~2학년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른 문해력, 수해력 지도 방법을 심도 있게 다루는 토론이 이어져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연찬회에 참석한 한 교사는 '학습부진은 학생의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교사로서 읽기 지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했음을 느꼈다'며, '기회가 된다면 문해력 및 수해력 지도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운영해 깊이 공부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목포교육청 관계자는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중심으로 교사들이 학습부진학생 지도 역할을 꾸준히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지역 사범대학과 연계한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원 사업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목포=박정수 기자

